

북한개발소식 05

2021 May | 통권 187호

| 이달의 주제 |

“한반도 국제정세와 북한”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국제정세와 북한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May

이달의 주제 :

“한반도 국제정세와 북한”



권두칼럼	01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국제정세와 북한
칼럼_1	07	북핵문제와 동북아역학관계
칼럼_2	15	문성묵_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 핵 문제
칼럼_3	20	조성봉_ 미중 대결과 한반도 정세, 내년이 고비다.
칼럼_4	25	안찬일_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 북한 변화전망
탈북민 수기	32	편집부_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였던 그 찬양 (하)
북한 뉴스	37	북 김정은 “고난의 행군” 5년 만에 언급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



01



15



25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혼란하다. 미 중 대결 구도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을 과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국제관계는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7년 싸드 사태 당시 한인 선교사가 대량 추방되고 상당수의 한인 교회가 문을 닫는 등 당황스러운 경험을 겪은 우리로서는 최근 정세 변화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관점에서도 근래의 국제 정세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선교에 미칠 영향과 대응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미중갈등의 전개와 현황

바이든(Joe Biden)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간 첫 고위급회담이 지난 3월 18~19일 (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미·중 고위급회담은 양국의 외교담당 최고수장 간 2+2 회담이었다. 미국 측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 대화상대는 양제츠 주임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양측



은 여러 분야에서 충돌했으며 결국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회담은 현재 미중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대만·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 등을 억압하고,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압박 등을 추진한 데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국제 여론을 대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이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나 국제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담 이후 양 측은 솔직한 대화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기는 했지만 실제 회담 당시에는 고성이가 오가며 설전을 벌였다.

현 미중 갈등의 분기점은 2018년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갈등의 불씨는 키워져왔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점차 심화되었고 부시 정부에 들어와서는 중국을 가상의 적에 가까운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이 덩샤오핑 시대의 외교방침인 도광양희(韜光養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를 계승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 주석의 화평굴기(和平崛起) 등 온건 노선을 유지하였고 양국 관계는 2018년 이전까지는 표면적으로나마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정권 이후 중국이 대국굴기(大國崛起, 대국으로 우뚝 섬)을 내세우고 강국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양국 관계의 불협화음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2018년 미국의 대 중국 고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미중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경제 외에도 인권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파이프아이즈(Five Eyes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쿼드(Quad, 2007년부터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 회담, 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 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 기구로 발전한 것) 등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맹국들을 결집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그간 추진해 온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 호주산 원자재 수입을 중단하는 등 경제 보복으로 강경대응하면서 미중 갈등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다.

미중 갈등과 북중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북핵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중 정상



〈북한이 지난 17년 2월12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장면〉

은 미중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직후인 3월 22일 구두친서를 교환하고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3월 21일에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으며 뒤이어 25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금지된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말레이시아의 북한인 미국 인도,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권 비판 등에 대한 불만의 표시 및 미국과의 신경전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북한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는 비핵화 대화 결렬 이후 미국과

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지도자간의 극적인 담판 또는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던 탐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실무진에서부터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협상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미중갈등의 고조는 북중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사실 북미대화 이전 시점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진행하는 북한이 못마땅했고, 북한 역시 중국의 간섭에 불만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후 전에 비해 강도 높은 유엔 대북제재를 승인한 것도 당시 양국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가 중국을 배제한 가운데 직접 대화에 나서자 북중 관계도 급변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중국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며 북한과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시키던 동시기에 시진핑 역시 김정은과 15개월 사이에 무려 5차례나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특

히 시진핑의 평양방문에서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식 해결법인 ‘중국방안(中國方案, Chinese proposal)’을 제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보유려를 해소시켜주겠다는 제안이다. 이성현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이 추구하는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서방 주도 세계 질서와 차별되는 중국식 해법을 내놓으면서 기존 국제사회의 리더인 미국의 위상 약화까지 추구하는,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미중 경쟁 구도가 배경이 된 행보라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북한에게는 안보를 책임져 줄테니 안심하고 미국과 협상에 임하라는 뒷배를 제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¹ 제재로 인해 어려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나 제재조치에 예외가 되는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통한 북한에 대한 간접적 지원 등도 이러한 양국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중 관계는 더욱 밀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할 효과적 카드로서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국면에서 생존하고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



〈19년 6월 20일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의존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 북중 관계 양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중 밀착 관계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북핵 문제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을 그리 바라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에는 동의하는 점이 있지만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할 유인도 없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의 핵심 국가이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를 독단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강도를 약하게 한다던지 제재 예외 분야에서의 도움을 제공한다면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박병광은 북한으로서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경제 협력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개선에 매달리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압박과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역할론’에 더 강하게 의존함으로써 한반도에 중국의 영향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²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동화되거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보다는 사회주의 동반

자로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랄 것이다. 즉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동상이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충분한 이상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체제에 가할 부담에 비해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여기며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중국 역할론에 몰두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 이슈가 선교 현장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기독교 선교 활동 자체는 중국과 북한 모두 경계하는 만큼 당분간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북한선교활동은 계속해서 많은 제약과 규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사드(THAAD) 배치 당시와 같이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포지션이 중국 거주 한인들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선교 현장의 변화를 확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미 관계 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된다면 선교 현장에서는 늘어난 북중간 인적, 물적 교류에 발맞춰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찾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반면 북핵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

1 이성현 (2020) 북중관계와 미중관계: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 변수에 대한 고찰, 성남:세종연구소, pp. 34-36.

2 박병광 (2021) “코로나19와 바이든 시대 북중관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3월호, pp. 37-45.


고 북핵 이슈에 긍정적인 무드가 전개된다면 제재 완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교류협력의 영역에서는 활로가 열릴 수도 있고 기업의 진출이나 NGO 활동이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는 각각의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는 듯하다.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수적이지만 북미 대화에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현재로서는 어렵고,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오히려 한반도가 미중갈등의 무대로 전락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에 잘못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까지 겹친다면 막대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의 리더들을 위한 기도에 나서야 한다.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평화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의지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로 이 땅에 복음의 진전과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하자.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미중 갈등 심화와 혼란한 국제 정세의 전개는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선교사님들의 현장 체류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국경의 상황이 나아져서 좀 더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교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된 기도가 요청된다. 그 외에도 한국 교회와 선교계 전반이 급변하는 정세에 잘 대비하고 다양한 선교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이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나라와 군왕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군왕들이 무색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시대에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각각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비웃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뤄가실 것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 2:8, 12).” 한반도의 복음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북돋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북녘의 영혼들을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북핵문제와 동북아역학관계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

미국 조 바이든(Joseph Biden)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이번 달 예정되어있다. 최근 동북아 정세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미중관계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이번 한국 방문에 있어서는 미중관계 이외에도 북핵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외교안보 공약의 주요 공약 중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강화, 이란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 복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비준, 핵무기 역할 감소 등 핵관련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는 특히 북핵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여 동맹과 협의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였다.¹ 4월 15-16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문제에 있어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루자는데 합의하였다. 반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말하였다.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 국가외교에 있어 최고의 이슈이자 동북아 역학관계의 핵심 변수인 북핵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과정을 설명하기 보다는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된다면 그것이 남북관계와 주변국정세에 미치게 되는가와 관련하여 과거 핵보유국 사례들을 통해 예측하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찾아볼 것이다.

비공식 핵보유국이 탄생되는 과정

과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

¹ 김법현, 문성준, “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9집, 1호, (2021) p. 168.

발에 성공하여 비공식적 핵보유국이 된 국가들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 핵개발에 있어 북한은 이 나라들의 뒤를 쫓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국가들의 핵개발 마무리단계와 그 이후의 상황들을 통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짐작 해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뚜렷한 주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그 주적들과 전쟁의 경험이 있고 심각한 적대감이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의 국가로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와 같은 분명한 적국들로 둘러싸여있다. 이스라엘은 건국이전 나치독일에 의한 유대인 집단학살과 강대국의 묵인의 경험을 통해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안보철학을 갖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초대총리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은 1945년 미국의 핵무기의 위력을 목도한 후 1948년 건국과정부터 해외에 있는 유대인 과학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1949년부터는 우라늄을 찾기 위한 네게브지역의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지질조사의 공식명분은 “원유탐사”였다. 이후 비밀리에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967년부터 핵무기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이스라엘 총리 마이어(Goldar Mier)와 미국 대통령 닉슨의 회담에서 미국은 핵프로그램을 공개하거나 핵실험

을 시행하지 않는 모호성(ambiguity or opacity)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핵개발을 용인하였다.² 2014년 지미카터대통령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3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파키스탄과 지속적으로 국경분쟁을 겪어오고 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시기부터 인도령 카슈미르 북동쪽과 중국 티베트 남서쪽 악사이친의 경계지역을 놓고 양국의 갈등이 있어왔고 1962년에는 이 분쟁으로 인한 라다크 전쟁이 발발하였다. 당시 전쟁의 결과는 중국의 압승 이었다. 라다크 전쟁 이후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이는 인도의 핵개발에 동기를 부여했다. 1964년 중국의 핵실험으로 인도 내 핵개발 논의가 시달 된 이후 1974년 첫 핵실험으로부터 민주국가인 인도는 수많은 내부논의와 핵정책에 대한 여야갈등을 거치며 핵개발의 진행과 멈춤을 반복하였다. 결국 인도는 1995년까지 무기급 플루토늄 425kg을 추출하게 되고 1998년 핵무장을 본격화 한다. 이에 UN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인도의 핵개발을 촉구하였으나 인도는 이를 무시한다. 이후로 인도는 핵 선제사용 금지와 최소억지의 doktrin을 제정하고 이를 지킴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효

2 Thomas C. Reed and Danny B. Stillman, The nuclear express (MN: Zenith Press, 2009), pp. 70-83.

과를 보아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인도 관계는 발전하였다. 2005년에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식 선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인도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³

파키스탄은 1971년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패배하여 동부지역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파키스탄은 1959년 체결된 미국과의 동맹에 기대를 걸었으나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파키스탄은 주적인 인도에비해 면적은 1/4, 인구는 1/6에 불과하였으며, 국방력과 경제력에 있어서도 심각한 열세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5년 인도의 핵실험이 있었고 이에 자극을 받은 파키스탄은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ir Khan) 박사의 주도로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 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움직임에 대해 1979년부터 미국은 경제제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고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협력이 절실했다. 결국 레이건 정부 들어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제재백지화와 더불어 32억달러의 원조를 이어갔다. 당시 파키스탄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파키스탄의 핵개발보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소련 축

3 위의 글, pp. 239-244, 255.



〈핵탄두 탑재 가능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인도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진은 인도 최초의 ICBM 아그니 5의 발사 모습〉

출이 더 중요하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말 속에 드러난다.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에서 퇴각한 이후 1990년부터 미국은 다시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였으며 1998년 5월 파키스탄의 대규모 핵실험 이후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한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로 파키스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미국에게 파키스탄은 다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 이로 인해 경제제재는 완전히 해제되었고 이후로도 한동안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았다.⁴

핵미보유국이 핵보유국이 되면 생기는 변화

1946년 미국의 학자 브로디(Bernard Brodie)는 ‘핵억지이론(nuclear deterrence theory)’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억제란

4 위의 글, pp. 244-260.

미사일 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6차에 걸친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 북한은 핵능력을 발전시켜왔으며 많은 성과를 견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은 플루토늄 54kg과 농축우라늄 800kg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능력은 기존 핵보유국 5개국과 비공식 핵보유국 3개국의 바로 뒤를 잇는 상태이며 투발수단까지 보유한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안하고와 관계없이 남한과 주변국들은 북한의 심각한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한국에 비해 열세를 보인다. 또한 북한은 냉전시기 소련, 중국과 동맹을 맺었으나 동구권 붕괴 이후 1996년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되던 동맹을 갱신하지 않아 북-소(러) 동맹은 자동 폐기 되었으며 북중동맹은 아직까지 유효하긴 하나 그 동맹의 성격에 있어 한-미 동맹에 비해 낮은 결속력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의 북한을 기존의 비공식 핵보유국들과 비교하자면 강대국의 안보지원 여부는 인도와,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열위 문제에 있어서는 파키스탄과 같은 입장이 된다.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강력한 동맹의 전폭적 지원이 없고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적국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 할 때 그 핵보유국은 자신의 핵전력을 과장하게 된다. 해당

국가가 현상타파를 추구할 경우 핵무기의 '정치적' 위력 나타내어 상대국의 대응 공격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 자신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국가는 치밀한 도발과 군사력 사용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장욱은 과거 핵개발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과거 핵개발국가들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였는데 그의 분석의 결과는 첫째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정책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 둘째 북한의 핵무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될 것이라는 것. 셋째 핵무장 이후 북한은 공세적인 군사독트린의 수립과 함께 재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⁷

실제로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 UN대사 지성남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이어가며 핵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재래 군사도발의 확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7 이장욱, “핵 보유 이후 인도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33,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p. 290-292.

한국교회의 역할

지난 2천 년간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시도해왔다. 수많은 학자들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이 해석은 악에 대한 대항과 해방을 위한 성전론(聖戰論), 평화의 유지를 위한 정당전쟁론, 그리스도의 비폭력을 본받는 평화주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⁸ 핵무기의 등장과 그로 인한 위협이 확산되어가며 최근에는 위의 입장들이 상당부분 기독교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핵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의 중간 즈음으로 수렴되고 있다.⁹ 정당전쟁론의 대표적인 견해로는 라인홀드 니이버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은 나약하며 자연적 세계의 필연성과 우연성에 제약되는 존재이자, 죄성에 의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정치조직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 절대적인 경쟁을 한다면 화해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핵 역지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며 평화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¹⁰ 핵 평화주의의 대표적 학자 월터 스타인(Walter Stein)은 현재 급속한 세계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국의 핵보유를 인정하되 이는 적국의 핵사용에 대한 억제와 위협을 위해 소유할 뿐이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즉 핵의 (군사적 사용이 아닌)정치적 사용만을 용인하는 입장이다.¹¹ 두 이론을 종합 하자면, 이미 수많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간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급속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기존의 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핵 역시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용으로만 의미가 있으며 이 또한 점진적으로 폐기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요교단에 속한 신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는 위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학계 일부에서만 공유되고 있고 목회 현장에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성도들 또한 교회의 통일과 북핵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고 있지 못하다. 한국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 입장에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8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북한개발소식』 2013년 4월호의 권두칼럼을 참고하기 바람.

9 물론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 2006년 영국 요크(York)에서 열린 국제평화컨퍼런스에서 (KPCA 산하)미주장신대총장을 역임한 김인수 박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주장하였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NCCK 통일과 화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노정선 교수는 북한은 자위를 위한 권리를 가지며 미국의 핵위협에 대항하여 억지적 차원에서 핵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견해 모두 한국교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10 손창완, “한국교회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고찰,” 『피어선 신학 논문』 2권 2호(2013) p. 66.

11 박원근, “동북아 안보 환경과 평화 정착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신앙과 학문』 23권 3호, (2016) p. 111.

내어야 한다.

현재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의 핵심은 제재이다. 대북제재와 이로 인한 북한의 고립은 제3국 북한선교현장의 활동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핵포기 국가들의 사례들을 볼 때 제재는 군사적 공격을 제외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북핵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역할은 무력증강 혹은 동맹 강화를 통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재와 무력-동맹을 통한 견제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다. 제재

와 무력을 통한 견제는 핵억제를 위한 선택일 뿐이며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법은 전쟁을 통한 타의적 비핵화 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발적 비핵화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현재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비핵화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억지 정책의 정당성 강화, 북한의 상황과 전술 변화에 대한 대처, 국제역학관계의 변수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은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교회는 한국사회의 전국가차원의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로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한국교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억제, 대화를 위한 건강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 핵 문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전방위적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애매한 입장이다.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¹ 자세를 유지해온 우리 정부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형국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동맹 복원을 기치로 한국, 일본과의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북한과 중국도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기댄 북한은 핵·미사일 강화를 천명하면서 내부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대북정책의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 핵 문제를 짚어보

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미·중 간 전방위 갈등 고조

지난 3월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대면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 접촉이다.² 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질서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장지역을 포함해 중국의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논의할 것”이라며 홍콩과 대만 문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말하겠다고 압박했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우리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환영한다. 그

1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방점을 둔다는 외교전략이다. 전략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책략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전략이 더 이상 먹히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여기서 미중 고위급들이 나눈 발언 내용을 보면 현재 미·중 강등 양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상하게 기술해 본다.



러나 우리 국민, 친구들을 위해 원칙을 옹호할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에 양제츠 정치국원은 거세게 반격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과 금융의 우위를 활용한다”,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신장, 홍콩, 대만은 모두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미국의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권이 최저 수준에 있다”, “미국에서 흑인이 학살당하고 있다” 등 선을 넘나드는 말까지 해가며 미국을 공격했다. 왕이 부장도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초청으로 미국에 왔다”,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다.”며 미국이 최근 중국 통신회사에 추가 제재를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불만을 쏟아냈다. 이 회의는 예상대로 공동성명 없이 종료되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우려를 재확인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대만 문제는 물론, 무역, 기술, 인권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동맹국, 그리고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점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EU와 투자협정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고 EU 이사회는 3월 22일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인 4명과 1개 단체를 포함해 다른 5개국(북한,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리아, 남수단) 7명과 3개 단체에 대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제재 부과를 전격 결정했다.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처음 열렸다. 미·중 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각기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제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 인권, 그리고 국익에 기초하여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시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세웠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 오스틴 국방장관이 해외 첫 나들이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택했다.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일본에 들러 2+2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동맹의 강화를 확인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홍콩 인권 탄압 등을 비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기존

국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행동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며 중국의 해경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³ 아울러 센카쿠(尖角·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 열도가 미국의 일본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면서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3월 18일에는 한미 2+2 회담도 열렸는데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미는 한반도 제반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조율 중이며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관련 고위급 협의를 계속 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이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평화안정, 합법적 교역 유지, 국제법 존중에 대한 공동의지를 강조하고 한국

3 중국 해경법은 지난 1월 말 전인대를 통과하여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서 해경 조직의 직무를 규정하고 보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 법률에 따라 해경이 주권과 권익의 침해로 간주하는 외국인 혹은 화국 조직의 행위에 대해 갑판 기관총과 같은 무기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포함된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일관되게 약속을 어겨 왔음을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전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간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쿼드(QUAD) 한국 참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고 언급하여 한국의 참여 희망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의 동맹 복원 의지에 따라 한미 간에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타결되었다. 아울러 한미연합 연습이 도상으로 재개되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 당시 느슨해졌



〈4월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던 한미동맹의 정돈 현상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북정책 관련 한미 이견은 한미공조에, 한일 갈등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걸림돌이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시 미국은 지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⁴

북·중 간 밀착 행보, 중국의 북한 감싸기

한·미·일의 이러한 행보에 대응하여 북한과 중국 간에는 밀월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3월 22일 중국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서신에서 시 주석은 우리는 새로운 형제에 아래에 북한 동지들과 손을 잡고 노력하고 싶으며 양국 사회주의 사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양국 인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구두 친서를 통해 노동당 8차 대회 정형을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두터운 동지적 관계에 기초해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력 강화와 북남관계, 조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 결정했다면서 이는 적대세력

들의 전방위적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친서 교환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속히 대북 제재조치, 특히 민생 관련 규정을 조정할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이자 한반도 관련 중요한 나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 회의가 30일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추가 제재 결의안을 강조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주장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다. 두 나라는 오히려 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큰소리치는 것도 중국의 뒷배를 믿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역량 지속 강화, 비핵화 전망은 희미

금년 1월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재천명했다. 전술핵무기 개발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공언했다. 당 강령을 고쳐 무력 강화를 통해 통일을 더욱 앞당기자고 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강대 강, 선대 선 입장을 천명하고 자기들과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했다. 지난 2018년 (조건부) 비핵화를 언급하고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지금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전혀 없다. 오히려 행동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4월 2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수 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공동연구 결과에 보면 북한은 2017년 기준 최소 30개에서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핵무기 수가 매년 12~18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 말에는 핵탄두 규모가 최소 151개에서 최대 242개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⁵ 현재로서 더욱 큰 우려는 북한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이스칸데르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제반 상황을 보면 단기간 내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되면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시동을 걸 것이지만 북한이 호응할지, 중국이 여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교회의 기도 제목 : 한국 외교정책 방향, 북한 비핵화 공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첫째,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규율을 흔들고 자국민을 일당독재로 폭압하는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과 힘을 합할지 자주와 국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방향타를 정립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공조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혹여나 핵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 정권이 싫어하니 그들 눈치만 보면서 언급조차 못하는 자세는 고쳐야 한다. 한미 공조하 연합억제역량을 고도화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임을 분명히 인식토록 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는 태도를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기회가 된다. 대북전단 금지 등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 

〈외부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미국의 일본 편들기 현상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확실하게 동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월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고, 한미정상회담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런 현상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

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3/106390961/1> 검색일: 2021.4.18. 이 수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북한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 플루토늄(30~63kg)과 농축우라늄 총량(175~645kg)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이다.

미중 대결과 한반도 정세, 내년이 고비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치유와 확산 방지에 집중한 나머지 2020년의 국제정치 이슈는 많지 않았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평온한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눈에 띄게 커졌다. 특히 2020년 5월에 발표된 백악관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함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백악관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IT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바이

든 행정부 하에서 미중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중 대결 속에서 한반도 정세에는 또 어떤 불확실성과 암운이 드리워질 것인지를 살펴본다.

2. 미국의 전략적 각성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노선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강경노선은 적절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 극한 경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정상간의 전화통화와 지난 3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있었던 미중 외교장관의 격렬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중 갈등은 이제 국제정치 질서의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론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주축인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국민일보)〉

일관되고 초당파적인 입장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의 당혹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과거 20년 동안 중국의 개혁은 늦춰지다가 멈춰 섰고 급기야 반대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바라는 시민 중심의 자유롭고 열린 질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에 비쳐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백악관 보고서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해 펴낸 미국의 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²를 요약하는 결정판이다. 이 두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2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6), Indo-Pacific Strategy Report 및 US Department of State(2019. 11),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Shared Value

시진핑 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경협한 전략적 각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전환점은 시진핑의 집권이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의 성장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덩소평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표방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중국의 힘이 충분히 자라기까지 내적으로 힘을 기르고 인내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었다. 시진핑 직전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일어선다’는 의미의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내세워 주변국이나 세계와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 Chinese Dream)’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제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며 야심차고 확장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확장적 외교정책의 하나가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육로와 해로를 건설하는 중국의 인프라 건설사업으로서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의 물류 및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시진핑은 남중국해에 중국의 군사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구단선(九段線, Nine Dashed Lines)’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여 사실상 남중국해를

1 White House(2020. 5),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위구르족 탄압 반대 시위 모습 (디지털 투데이)〉

중국의 앞바다로 선언하였다. 이뿐 아니라 남중국해 공해상의 여러 암초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 등을 설치하여 필리핀 등 인근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서태평양에서의 미국 해군력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둘씩 진행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중재재판소는 2016년 이와 같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정한 바 있다. 남중국해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등 여러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오가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양물류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바다여서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불러들이고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정규적인 군사훈련

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지역 바다를 둘러싼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은 또한 중국의 외곽 국경지대인 신장 위구르, 내몽고, 티벳, 홍콩 등의 지역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을 탄압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시진핑은 중국내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우선 그는 반부패 운동을 통해 정적을 숙청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위상을 강화하여 중국 통치 시스템에서 공산당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진핑은 전인대회에서 대통령직에 대한 두 번의 임기제한을 없앴으로써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중국 헌법을 개정하였다.

Mearsheimer(2014)³가 주장한 것처럼 냉혹한 국제정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평화롭게 부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중국 국내 및 외교정책에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공격적 태도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새롭게 전략적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3. 한반도를 둘러싼 시한폭탄

트럼프와金正은의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³ Mearsheimer, John(2014), “Chapter 10: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pp.360-411.

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고, 이어진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면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와 비교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착실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던 경험에 비추어 바이든은 국무부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조언을 경청할 것이다. 그는 시간을 들여 행정부의 적절한 관행과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사회와 동맹국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스타일을 감안한다면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우발적으로金正은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비록金正은이 경제와 핵무력 강화의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지금까지 버텼지만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 제재 이후 북한경제는 점차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2020년 대외무역 규모는 2019년에 비해 8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金正은은 2021년 1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북한이 5년전에 수립한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처럼 정책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드



〈올해 초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제 8차 대회 개회사에서金正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다.〉

문 경우로서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송실대 평화통일연구원이 지난해에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실장은 북한 경제의 무역, 산업, 재정 및 시장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⁴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외화 보유고는 4-6십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 해에 소요되는 외화가 10억달러 정도라고 가정할 때 2021년과 2023년 사이에는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바닥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이 의지할 대상은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돕게 되면 자칫 미국의 중국 은행이나 기업에 대

⁴ 임수호(2020), 「대북제재-코로나 19 이후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대북제재-코로나 19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전망」,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세미나.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 북한 변화전망

안 찬 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한 제재를 촉발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과 미국은 첨예한 갈등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 않지만 북한은 외화 보유고와 함께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이 큰 딜레마다.

4. 결론: 운명의 2022년

202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취임 첫 해를 맞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급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금년 한 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중국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고 우방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한편, 시진핑에게 있어 2023년은 집권 10년이 되는 해이므로 늦어도 2022년에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22년에 대선을 치른다.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외교 및 국방 팀들과 함께 새롭게 재편성한 인

도-태평양 전략 및 대북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2022년은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거의 바닥나는 시점이다.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비핵화밖에 없으나金正은이 권력기반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시간을 버는 전략으로는 더 이상 미국을 설득하거나 속일 수 없다. 미국은 비핵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주변국의 시간표와 대응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운명의 2022년은 한반도에 어떻게 밝아올 것인가? 

〈외부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2027년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북한 간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전쟁 초반에 한국에 대규모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개발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얼마 전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4월 13일 발간한 공동연구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북한은 2017년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매년 12~18개씩 추가해 2027년에는 핵무기 151~242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9년 말 북한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총량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기도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정권 유지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통일을 위해 핵을 필수적인 수단으로 판단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가 부여하는 영향력과 지렛대를 이용해 부유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며 “핵무기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북한은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사시 전쟁 초반에만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국내 정치·군사적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핵 공격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는 방식 외에도 국적을 변경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 한·미·일의 항구로 보내 폭발시키는 방식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을 격퇴하고 정권을 확실히 꺾을 것”이라는

⁵ 미국 재무부는 우방국인 프랑스의 파리은행에 대해서도 대이란 경제 제재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에 89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 미국의 전략·전술 핵무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설정한 제한보다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개발을 지속했다며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추산대로라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50여 개의 핵무기를 추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미국이 분명하게 핵 억지력을 확장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세가 이렇게 흘러갈 경우 현 정부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이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지난 4월 7일 광역단체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분명 브레이크를 뒀다.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관심 끌기에만 나섰고, 남북 대화 단절까지 예고했다. 외화가 고갈된 북한은 도쿄올림픽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올림픽을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한국은 이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 평화프로세스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국 모두 관심이 미중

갈등에 쏠린 모양새다. 특히 미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임기 초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국이 한반도의 운명에 끊임없이 시동을 켜고 있음에도 주변 탑승자들이 해당 행선지를 왜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반전 포인트는 한미정상회담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 과정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외교진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17~18일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은 한미 동맹이 복원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미 간 입장 차만 확인하는 결과밖에 얻은 것이 없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공동성명서에는 북한 비핵화와 중국에 대한 표현이 담기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양측 장관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쏙 빠졌다. ‘중국’에 대한 표현은 아예 성명서에 담지도

못했다.

미국이 앞서 열린 미일 2+2 회담에서 중국을 콕 집어 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대조되는 내용이었다. 양국 장관은 성명서에서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양국의 시급한 과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측은 대북 문제보다는 중국 압박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미국 측 장관들은 문 대통령에게 “중국과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블링컨 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같은 달 18~19일(현지시간) 곧바로 이어진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세간의 예상을 깨는 날 선 설전을 벌이기도



〈북한의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좌) 명의로 3월 16일 발표한 담화(우).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에 유감을 표시하자 ‘바보스러운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중앙일보)〉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장관은 미국 장관과 만난 직후인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한미 간 대북·대중 전략에서 이견이 확인됐음에도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한미 접촉이 본격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 포문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권력 수위에서 아래로 한 발 물러선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이 열었다. 그는 지난달 16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해체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같은 달 8일 시작됐음에도 훈련 막바지에 굳이 담화를 낸 것 자체가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행보였다.

북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 달라는 일종의 시위라는 분석도 나왔다. 3월 25일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인 26일 “국방과학원이 3월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김여정은 30일에도 담화를 내고 막말을 동원해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 미사일발사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의 담화를 두고 “유감이다.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관은 더 멀어진 양상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3월 30일(현지 시간)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기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김홍걸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논란과 더불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언급했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3월 25일(현지시간)에는 국내 언론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3월 25일(현지시간) 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3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3월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도 종전선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긍정적 검토를 공개 촉구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선행돼야 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30일 담화에서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결코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털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담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중국과 북한 등 전체주의 진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훈 실장, 미국 설리번 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안보사령관 3자 회담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곧바로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관련 성명 직후인 31일 정의용 장관은 이달 3일 중국 왕이 부장을 만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숨 막히는 줄타기 외교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



〈4월 18일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은 17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월 9일 취임한 정 장관의 첫 해외 방문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두 장관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가서 주로 대북 문제를 다뤘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서훈 실장은 회의 직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며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며 한일 간 협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

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부장을 만난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한중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 장관은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왕이 부장과 정의용 장관의 회담’이라는 제목의 회담 결과 자료에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도교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며 우리 정부에 찬물을 끼얹었다. 도교올림픽을 기점으로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미국 하원 산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평화프로세스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게는 악재가 겹쳐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의 미국 송환을 전격 단행했다. 북의 동남아 불법 거래가 전부 드러날 수 있다. 그러자 북한은 2017년 김정남 암살 때도 말레이시아와 유지했던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북은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미북 쇼’를 성과로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 때라면 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엔 통하지 않는다.

헛꿈으로 고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한국 정권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끝내 뺐다. 북한 인권 문제도 없어졌다. 이렇게 국제 정세는 급변하는데 김정은은 핵 자폐증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 대선용 남북 이벤트를 벌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최근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남북 경제력은 45배쯤 차이가 난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비교다. 꼭 이런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남북의 경제력은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고,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

다. 압도적으로 강하면 욕을 먹거나 미움을 받을지언정 무시를 당하거나 우습게 보일 일은 거의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은 언제부턴가 최빈국 북한에 조롱·모욕당하는 게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특등 머저리’ ‘태생적 바보’ ‘겁먹은 개’ ‘미국산 앵무새’ 같은 모욕적 표현만이 아니다. 과거에는 북의 거친 입에서 어떤 목적이 보였다면, 요즘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투의 경멸뿐인 느낌이다. 김여정은 우리 대통령에게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라” “처신머리 골라 하라”며 아랫사람 훈계하듯 했다. 최소한의 예의·배려도 없다. 조금이라도 한국을 두려워하고 후과(後果)를 걱정한다면 이렇지 못한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핵(核)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76년 장기독재의 북한 김씨 일가는 휴전선

이남의 국력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 년에 걸쳐 체득했다. 이 정권 들어서는 아예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착각에 이르렀다. 한국은 방어 무기인 사드 하나 들여오는 걸로 난리가 났고, 국제사회와 함께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대북 제재 시스템은 ‘남북 쇼’에 목을 매다 스스로 허물었다. 김정은은 ‘대화 재개’ ‘올림픽 참석’ ‘서울 답방’ 카드도 여전히 쥐고 있다. 적절히 운만 띄우면 선거를 앞둔 레임덕 정권은 덩석 받을 것이고 나라는 또 두 쪽 날 것이다. 국력이 50배든 100배든 김정은이 한국에 겁을 낼 이유가 없다. 안보엔 좌우가 없건만 현 정부는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해 왔다. 북한은 위기의 벼랑 끝을 향해 더욱 줄달음 치게 될 것이다. 

〈외부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였던 그 찬양(하)

●
편집부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국가인 북한, 희진(가명) 자매는 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의 할머니는 지하 교인이었다. 할머니는 주일마다 어린 희진에게 작은 방 문을 잠가달라고 부탁하고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 자기 목소리도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희진 자매는 혹시나 실수로라도 할머니가 신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희진 자매를 포함한 온 가족이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희진 자매는 지금도 그렇게 숨어서 예배하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후원을 당부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희진 자매를 만나 북한에서의 생활과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2화에 걸쳐 정리하여 기재한다. (편집자 주)

예전부터 저는 운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의 성분이 좋지 않아서 힘든 적도 많고, 또 학교도 잘 다니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웬지 행운이 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넘어올 때 누구보다 수월하게 넘어왔습니다. 탈북을 하는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한 느낌이었습니

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슬펐지만 알고 보니 제가 팔려간 중국 가족은 믿는 집이었고, 저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었습니다. 집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북한 여자들이 팔려오는 모습을 보면 참

끔찍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인 남편 밑에 자녀도 두었지만 나중에 저 혼자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 가족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은 제가 떠나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정말 저의 삶은 복 받았다고 고백할 만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손녀인 저를 축복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입니다. 저는 학교에 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강의를 듣고 숙제를 하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매일 매일이 기적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 많이 반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와 삼촌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삼촌들은 당에서 일했었는데, 할머니의 신앙이 발각되더라도 하면 직업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촌들이 할머니와 많이 싸웠는데, 술이라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더 했습니다.

한번은 추석 때 성묘를 갔었는데, 할머니가 무덤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자 삼촌이 할머니를 가볍게 밀치면서 “절을 안 하려면 왜 왔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필이면 할머니가 불안정하게 서 계시다가 넘어지면서 언덕을 굴러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 후에 몇 달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계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희진 씨는 왜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즈음에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은 장사를 하다가 걸려서 모았던 돈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때 이 땅을 벗어나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모았고, 브로커는 그 돈으로 기차 승무원과 국경 지대 군인에게 뇌물을 주고 저를 탈출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브로커에게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탈북한 뒤에 브로커가 저와 어떤 여자 둘을 빈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 집은 돈을 주고 저를 산 중국인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같이 있던 여자는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 도착한 다음에서야 제가 팔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적에 중국 가면 팔려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는데 그 일을 제가 실제로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팔렸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아, 친척 집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팔아버렸구나...” 하고 혼잣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팔려간 집에서 세 달 정도 지났을까요... 중국 텔레비전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중국말을 아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얼마에 팔렸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돈으로 4만 5천 원, 한국 돈으로 약 8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처음에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밟았을 때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까, 아니면 살아남을까? 수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지,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붙잡히면 아주 오랜 시간동안 갇혀있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잡혀서 감옥에 갇힌다면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잡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머리 속에는 제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팔려간 다음에는 ‘아, 살았구나’ 하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팔려간 신세라면 자기 신변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 중국인 가족이 나를 사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돌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려온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계셨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중국 집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제가 보아 왔고 할머니는 참 선한 분이셨으니 중국 가족에 대해安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실제로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집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피해자였음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무섭고 험한 중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오는 사람들의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북한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볼 수 있었나요? 중국의 가족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었나요?

중국에 처음 가서는 오로지 기도할 때 빼고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사 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중국 가족들은 중국어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긴 했지만 저로서는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저의 엄마와 가족이 건강하



고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으니까요.

그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앞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몇 안 되었지만 그들과도 언어의 한계로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저의 주된 신앙 활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계기가 있나요?

한국에 와서 저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께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면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아

무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셨고, 저는 주님이 정하신 길에 대하여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온지 일 년이 다 되갈 때였습니다. 그 때 제가 인정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릴 때만이 제가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좋은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알아서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일 년 정도 되었을 때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국 가족들은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로 저희 딸이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저의 삶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희진 씨는 오히려 한국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되셨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정


말 힘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기쁨이 넘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할머니께서는 힘든 와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저와 저의 가족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고향과 그곳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비록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문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복녔의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현 시점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 사역을 통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물질로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드러낼 수 없고 또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귀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북 김정은 “고난의 행군” 5년 만에 언급



〈4월 8일 제6차 조선노동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식에서 '고난의 행군'을 선언한 김정은 북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며 내부기강 잡기에 재차 나섰다. 김 총비서는 4월 8일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진도상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다"면서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가 공개석상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이후 5년 만이다.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남 및 대미 관계 개선에 기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총비서는 이 외에도 당원·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통제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의 사상통제가 '최중대사'라며 옷차림부터 언행까지 세세하게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년 교양 문제를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로 채택한 후 올해 당 대회와 당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외부문물 유입 같은 반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한 간부의 처벌 등을 경고하며 사회통제의 고삐 죄이기에 간간히 쓰는 중이다.

이어 김 총비서는 당의 기강 확립을 촉구하고 문제 있는 주민을 교화하는 '인간개조사업'을 주문하면서 '과오를 범한 사람'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비서는 "불리한 자연 기후조건에서도 최고수확 연도 수준을 돌파한 농업 부문의 결실"을 언급했는데, 지난해 수해에도 농업 수확량이 나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포비서대회는 지난 4월 6일 개막했으며 사흘만인 8일 마무리됐다. 북한은 당 최말단 조직인 세포비서대회를 5년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연합뉴스 외 언론보도종합) 

+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북한 종교자유 최하... '특별우려국' 재지정해야"



〈토니 퍼킨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며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4월 22일 USCIRF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면 그 보상으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도 요청했다.


보고서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이란, 시리아, 베트남 등 13개국을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꼽았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종교 자유 정도를

평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특별우려국 지정 시 미국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프레데릭 데이 USCIRF 부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에는 어떤 개선의 징후도 없다"면서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전단과 성경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물품을 보내는 활동가 중에는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가 많다"라면서 "인권 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참고:VOA, 4월 22일) 

북한 기도 제목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반도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갈등이 경제 부분을 넘어 과학기술과 인권 이슈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밀착되는 반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는 점차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의 강대국의 격전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등 다시금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 빨리 핵과 무력을 의지하는 것이 허상임을 깨닫고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복음적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 열방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 총 비서는 최근 “고난의 행군”을 다시 언급하며 간부들을 독려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치 않음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 내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위성사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고난의 행군 당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은 무엇보다 일반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이제는 체제 유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제대로 돌보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종교의 자유 개선과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며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여러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되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이 하루속히 종교의 자유 보장, 기독교 박해 종단,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을 비롯한 신

북한 기도 제목

앙을 이유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석방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범 수용소가 철 폐되고 오지로 추방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이 복권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로 인해 북한선교현장의 사역이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경통제와 선교현장 일부지역 지역 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멈춰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혼란한 국제 정세까지 더해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선교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에 맞는 선교의 기회를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비록 국경이 닫히고 사람의 왕래가 거의 끊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향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대북 선교 방송국들과 방송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방송이 제작될 뿐 아니라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안전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깨닫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대북전단금지법 재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되면서 대북라디오 방송에 대한 규제가 우려되었으나 정부는 대북 방송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환경 변화가 선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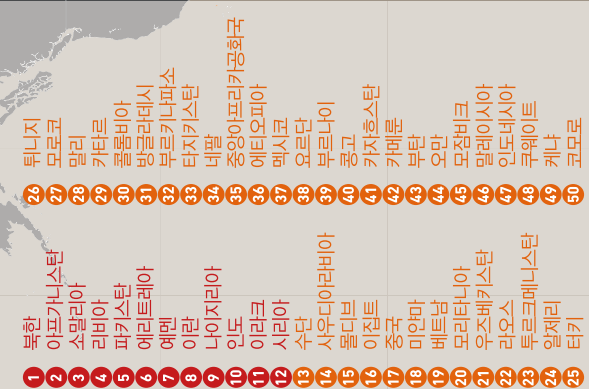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5월 1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30개 국가의 현장으로 부러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폭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L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디모데 황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교파송자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